*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 /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추가한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7 P.I.R.A.M 국어 10개년 기출문제집 독서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권 110p ㉡ 밑줄 (2쇄부터 반영)	㉡ 왜곡이 반영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 왜곡이 반영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For 2027 P.I.R.A.M 국어 10개년 기출문제집 독서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02p 50번 문제 3번 선지 아래 (2쇄부터 반영)	-	***생각 심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애초에 이 문제의 발문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지는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이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두 명제는 ‘<보기>’에서 언급한 명제들이 아니기에,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묻는 문제의 정답 선지가 되기는 어렵죠.
1권 364p 186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해설: 이 선지는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세균-진핵세포’와 ‘원생미토콘드리아-진핵세포’의 구도입니다. 이 경우 ‘고세균’이 곧 ‘진핵세포’가 되기 때문에,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의 ‘인과성’은 당연히 훨씬 강할 것이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세균-원생미토콘드리아’, ‘고세균-진핵세포’의 구도입니다. ‘고세균’과 ‘원생미토콘드리아’는 ‘공생’을 하는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인과성은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세균’과 ‘진핵세포’는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강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선지가 되네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검토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강한 인과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설: 선지에서 ‘강한 인과성’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를 동일한 개체로 보는 조건이 바로 ‘강한 인과성’이었죠? 우리가 이해한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고세균’이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고세균’과 ‘진핵세포’는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동일한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인과성이 ‘원생미토콘드리아’ 및 ‘진핵세포’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FAQ*** Q : 이 선지의 비교 구도를 ‘고세균-진핵세포’와 ‘원생미토콘드리아-진핵세포’의 구도로 보신 것 같은데, 선지가 중의적이어서 ‘고세균-원생미토콘드리아’, ‘고세균-진핵세포’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A :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더라도, ‘고세균-원생미토콘드리아’는 공생을 하는 ‘서로 다른 개체’이고 ‘고세균-진핵세포’는 동일한 개체이기 때문에 후자의 인과성이 더 클 것이고, 이에 맞는 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지에서 묻는 ‘강한 인과성’은 ‘상이한 시기’와 관련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해설’의 비교 구도가 출제 의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권 352p 182번 문제 <보기> 아래 둘째 줄 (2쇄부터 반영)	이때 0%부터 150%까지~	이때 20%부터 150%까지~
2권 92p 266번 문제 5번 선지 (2쇄부터 반영)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권 208p 330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아래 (2쇄부터 반영)	-	***FAQ*** Q : 동일론자들도 분명히 인간과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는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분이 적절한 것인가요? A : 그래서 1번~2번 선지의 비판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입니다. 3문단 7번 문장을 보시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328번 문제의 정답 선지와도 이어지는데, 아직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언어에 '수준 차이'가 있지만 328번 문제의 정답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면' 그 '가능성'이 달성되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국 확정적인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2권 244p 3문단 5번 문장 해설 2문단~'하이라이트 문장' 바로 위 (2쇄부터 반영)	또한, 온도 변화가 크다면 당연히 그만큼 P층과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커진 상황과 마찬가지로 '곡률'도 커질 것이에요. 이렇게 초반부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납득하는 정보의 양과 선지 판단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온도 변화가 크다면 당연히 그만큼 P층과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Q층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커진 상황과 마찬가지로 '곡률'도 커질 것이에요. 계속해서 '열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휘어진다.'라는 한마디만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⑥~⑦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한편,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역시 당연한 말입니다. 물질에 따라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에, 띠를 이루는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휘는 정도 역시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부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납득하는 정보의 양과 선지 판단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아가,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민감'하게 '휘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하나의 물질 단위의 '열팽창' 정도라면, '휨 민감도'는 그 물질들을 합친 띠 단위의 '열팽창'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계속해서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라는 한마디만 반복하는 지문이에요.

For 2027 P.I.R.A.M 국어 10개년 기출문제집 문학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권 76p 지문 ㉣ 밑줄 (2쇄부터 반영)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For 2027 P.I.R.A.M 국어 10개년 기출문제집 문학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208p 109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마지막 줄 (2쇄부터 반영)	쉽게 허용할 수 있었겠네요.	쉽게 지워낼 수 있었겠네요.
1권 341p 18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문단 (2쇄부터 반영)	물론 강물이 흐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 부분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겠네요. 해당 부분을 독해해 보면, 화자는 그저 '언덕' 위에 발을 놓고 서 있을 뿐 무언가를 깨닫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나아가 '깨달음에 대한 의지'는 '성찰'이라는 이 지문의 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도 하구요. 허용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지문의 주제인 '성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괴로움의 원인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자는 자신이 왜 괴로운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제'라는 근거가 있으니, 해당 부분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1권 341p 18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아래 (2쇄부터 반영)	-	***생각 심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지문 속 화자의 내면세계를 깊게 탐구해보면, '바람 / 강물'과 같은 자연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변화하는데) 자신은 괴로움의 '이유'를 탐구하지 못한 채 '반석 / 언덕' 위에 가만히 멈춰서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지는 '변함없는 자연'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기에 틀린 선지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상당히 어려운 선지였습니다.